

## 경제자유구역 지정범위 놓고 광주시·전남도 '어긋난 상생'

함평·장성, 광주시가 신청 했지만 전남도 요구로 제외 ... 미래비전 공유 안 해

광양만권에 이어 광주·전남의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앞두고 전남도가 광주시에 근접한 함평과 장성에 포함된 구역의 제외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시는 미래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인 만큼 광범위한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실익이 없고 부담만 커진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나주·에너지벨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은 전남도의 '속내'와 주변 시·군과 범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광주시의 '바람'이 충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상호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과 공유가 없다보니 정부 정책과 사업에서 불협화음이 자주 노출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평가위원들이 지난 20일 실사를 벌인 광주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지 가운데 광주시가 포함한 함평·장성 등 전남지역을 전남도가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 결국 최종 신청 서류에서는 함평(222만4000㎡·빛그린산단)과 장성(269만4000㎡·첨단3지구)을 제외한5개 지구(5.6km)만이 대상지가 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 투

광주 "광주권 근접 지역 발전" 전남 "효과 적고 운영비 부담"

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 전용 학교·영리법인도 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규제 완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국내의 투자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노동·경영 관련 각종 규제 완화 특례가 제공되고, 파견근로자 기간·업무 제한 완화나 무급휴가 제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광주시는 이런 이점을 활용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적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 함평·장성의 지역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남도의 입장은 달랐다. 관세감면(5년간 100%) 혜택을 제외하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더라도 이미 지정된 국가산단(함평 빛그린산단·연구개발특구(장성)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부터 폐지됐으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면제 조치도 유사하다. 경제자유

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1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취득세는 면제해주는데, 국가산단은 국내기업과 외부기업에게 취득세는 75%, 재산세도 5년간 75% 감면해준다. 기반시설도 진입도로나 간선도로의 경우 국비를 50%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국가산단에서는 100%를 지원받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리병원, 외국인 전용 학교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인천을 비롯, 국내에도 입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있으나 마나한' 인센티브라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여기에 전남도는 기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매년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4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부담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사·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 조합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데 있어 상호 의견·정보 교환이나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지금부터라도 광주·전남이 서로 원하는 것을 상호 파악하고 이를 지원·보완하거나 조정·조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하사날 불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하사날 불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참석차 국빈방한했다. /연합뉴스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 평화·번영 위한 협력관계 강화

부산에서 3박4일 일정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날인 25일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발판 삼아 평화·번영을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하사날 불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ICT와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 뒤 부산으로 이동해 3박4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전남 리센통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한 데 이어, 이번 회의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모두 회담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25~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뒤에는 '한·아세안 공동비전'을 채택하기로 했고, 27일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 후에는 한국과 메

콩강 유역 국가들의 협력방안을 정리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한·필리핀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이처럼 양자·다자회의를 넘나드는 외교전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단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여기에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시장 잠재력을 갖춘 아세안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들도 속속 부산으로 몰려든다. 문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 등을 포함해 200여명의 경제계 인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32억원

김환기 화백 작품 '우주'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 화백이 한국 미술사를 다시 썼다.

<관련기사 16면>

김 화백의 대표작 '우주'(사진·Universe 5-IV-71 #200-254X 254)가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 기록을 세웠다. '우주'는 지난 23일 홍콩컨벤션전시센터(HKCEC)에서 열린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약 131억8750만원(8880만 홍콩달러)에 낙찰됐다. 수수료를 뺀 낙찰가 기준으로 한국 미술품이 경매에서 100억원 넘는 가격에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수료 포함 가격은 153억원 4930만원(1억 195만5000 홍콩달러)다.

1971년작 푸른색 전면점화 '우주'는 254X127cm 독립된 그림 두 점이 연결된 대작으로,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추상화이자 유일한 두폭화다. 이번 작품은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 주치의였던 의학박사 김마태(91)씨 부부가 작가에게 구매했다. 40년 넘게 소장하다 처음으로 경매에 출품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달빛하기

광주·대구 청년들 교류 한마당 ▶9·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록모형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지소미아 종료 연기...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 추진

외교장관 회담 현안 논의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가운데 다음달 중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면서 한일 현안해결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 언론이 보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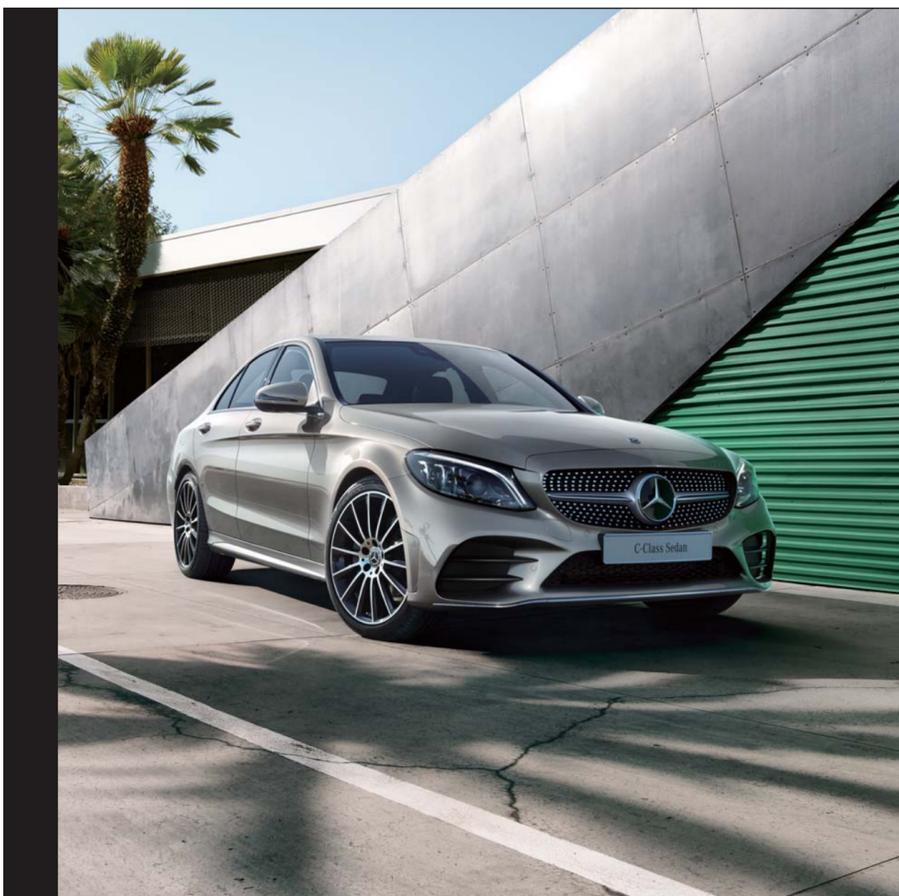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사안도 회담에서 나와서 서로(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다음 달 말 중국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

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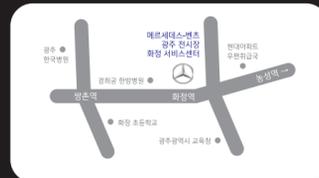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